수도원에서의 하룻밤.

속세에서 떨어진 고요 속 진짜 인생 여행

스위스에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다
스위스 외딴 자연 속에서 마음을 쉬어가다
수도회 담장 안, 그 고요의 세상에서 마주한 나의 삶
지친 마음 어루만져 주는 수도원의 마법 같은 기운
스위스에서 기운 내세요

예로부터 수도원은 고독하고 경건한 장소로 여겨진다. 속세에서 떨어진 곳에 터를 잡았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자연의 품속, 외딴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스위스에서는 최근 이런 수도원들이 일반 여행자들에게 그 신비스러운 문을 활짝 열고, 하룻밤 쉬었다 가라고 손짓한다. 짧게 묵으며 수도원의 일상을 엿보아도 좋고, 특별한 세미나나 이벤트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호텔로 개조하고 투숙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수도회 담장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 보는 것은 잊지 못할 체험이 되어줄 것만은 분명하다.

1. 흑인 성모님을 모시는 베네딕트 수도회(Benedictine Monastery with Black Madonna)
아인지델른 수도회(Einsiedeln Monastery)는 짙푸른 물과 웅장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 수도회를 지난다. 1,000 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순례자들이 아인지델른 수도원을 찾고 있다. 지금은 자연과 문화를 찾아 길을 나선 이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아인지델른 수도원은 18 세기에 네 개의 안뜰을 품은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지어졌다. 그 시대 이전에는 로마네스크 및 고딕 양식이 수도원을 장식했는데, 835 년 년에 베네딕트회 수도사 마인라트(Meinrad)가 설립한 것이다.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자비로운 예배당(Gnadenkapelle)은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둥근 지붕 아래 수도원 교회 안에 있다. 유명한 검은 마리아 상은 이 예배당 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5 세기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수도원 단지 내에 수도사들을 위한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교구 학교, 10 곳의 작업장, 수도원에서 직접 생산한 와인 창고와 수도원 소유의 말을 사육하는 마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콘서트, 가이드 투어, 공개 미사 등을 통해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은 모든 방문객들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스위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수도원 단지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남성이라면 최대 일주일 동안 수도회의 일상에 참여해 볼 수 있다. 기도 시간과 식사 시간에 수도사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찾아가기:
취리히(Zurich)에서 아인지델른까지 가는 직행 기차 노선이 있다. 아인지델른 기차역에서 도보로 15 분 거리에 수도원이 있다.

예약:
www.kloster-einsiedeln.ch/unterkunft

2. 스위스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수도원, 디젠티스(Disentis)의 베네딕트 수도원
8 세기에 지어진 디젠티스 수도원은 지금까지도 상부 라인 계곡에 자리한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다. 역사 및 문화 전시에서는 베네딕트 수도회의 역사와 종교 미술을 살펴볼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처음 운둔지를 목적으로 720 년경 설립된 수도원은 루크마니에(Lukmanier) 고개 기슭에 자리한 까닭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곤 했었다. 8 세기 이후부터 내려오는 두 교회의 토대 성벽은 오늘날까지도 보존되어 있다. 수도원 학교는 1285 년에 연대기에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바로크 수도원 복합관은 1683-1704 년 사이에 건축되었다.

박물관에서는 수도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전통 및 종교 예술 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크리스털과 광물들을 전시하는 등 자연사에 대한 전시도 이루어진다. 베네딕트회 사제들은 시간마다 열리는 기도회와 성체 성사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디젠티스 수도원에서는 남성들을 위한 단기 체류를 제공한다.

찾아가기:
기차로 쿠어(Chur)를 거쳐 디젠티스/뮈스터(Disentis/Mustér) 역까지 간 뒤, 10 분만 걸으면 커다란 수도원이 등장한다. 빙하특급(Glacier Express)로 찾아가기도 좋다.

예약:
www.kloster-disentis.ch

3. 성 요한 베네딕트 수도회(Benedictine Monastery St. Johann)
스위스 동부, 뮈스테어(Müstair)에 있는 성 요한 수녀원(Convent of St John)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가 이 특별한 수녀원을 만들었다. 이 건물은 카롤링거 왕조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현재 몇 남지 않은 건축물 중 하나이다. 웅장한 프레스코화가 있는 8 세기 수녀원은 세계 최대 규모, 최상의 보존 상태를 보이는 중세 초기의 예수 일대기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 플란타(Planta) 타워에 있는 수녀원 박물관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수녀원 내부의 업무를 훑어볼 수 있도록 해준다. 960 년부터 내려오는 알프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 탑에는 현재도 오를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1200 여 년 동안의 수도원 및 건축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775 년부터 내려오는 뮈스테어 성 요한 수녀원에는 약 800 년에 그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 일대기 프레스코화가 있으며, 이 그림은 카롤링거(Carolingian) 왕조 때부터 내려오는 값진 작품이다. 회화 작품 연작은 교회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약 1200 여 개의 앱스(apse; 보통 성당 동쪽 끝에 있는 반원형 부분)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카롤링거 양식의 교회 및 교회의 독창적인 벽화는 이 웅장한 알프스 지역의 수도원을 세계유산에 등록된 지역으로 우뚝 서게 하였다.

수녀원에 마련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며 수녀원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개인 혹은 부부를 위한 9 개의 객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내에 마련되어 있다. 머무는 동안 수녀님들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원한다면 종교 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다. 투숙객들은 머무는 동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기도를 하거나 성체조배 및 성체성사에 참여하곤 한다. 식사는 내부의 식당에서 수녀원을 찾은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하게 된다. 게스트하우스 예배당에서는 깊은 사색과 명상을 할 수 있으며, 목회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수녀들이 전문적으로 금식을 지도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찾아가기:

체르네츠(Zernez)까지 기차로 간 뒤, 버스로 뮈스테어 클로스트라 손 존(Müstair Clostra Son Jon)에서 하차한다.

예약:
www.muestair.ch/en/plan-a-visit/guesthouse

4. 라퍼스빌(Rapperswil)의 카푸친(Capuchin) 수도원
라퍼스빌에 있는 수도원이 특별한 것은 이방인들도 수도원 일상에 오롯이 속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원 측은 방문자들 역시 실제로 종교 활동과 명상에 제대로 참여해 볼 것을 바란다. 출신 지역과 종교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환영한다. 쉽게 시작해 보고,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참가자 모두에게 전담 수도사 혹은 수녀님이 배정돼 동행하게 된다.

머무르는 기간은 사전에 미리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요일에 시작하고 끝나야 한다. 2021 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투숙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었지만, 2022 년부터는 다시 투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일정은 2021 년 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찾아가기:
취리히(Zurich)에서 기차로 라퍼스빌까지 간 뒤, 도보로 10 분 정도 걸으면 수도원이 있는 엔딩어슈트라쎄(Endingerstrasse) 9 번지가 나온다.

예약:
www.klosterrapperswil.ch

5. 취리히(Zurich) 근교의 카펠 수도회(Kappel Monastery)
카펠 수도회는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를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다. 수 세기나 된 수도회 전통과 현대적인 환대가 조합된 힘을 찾아볼 수 있다. 깊은숨을 들이쉬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룹 및 개인 모두 환영한다.

1185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도원으로, 취리히(Zurich), 추크(Zug), 루체른(Luzern) 사이에 있어, 대단한 알프스 풍경을 선사한다. 2012 년에 개보수되었는데, 건물의 역사성 있는 스타일은 잘 보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79 개의 객실이 갖춰져 있으며, 커다란 부지 내에는 고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호텔 내의 클로스터켈러(Klosterkeller) 레스토랑과 테라스를 갖춘 고요한 수도회 카페에서는 홈메이드 스페셜티를 맛볼 수 있다. 주변으로 펼쳐진 숲과 들판, 과일나무가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 준다. 알프스가 먼 거리로 보이고, 취리히, 추크 호수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이킹이나 사이클을 즐기기에도 좋다. 명상이나 허브를 넣어 올리브오일 만들기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찾아가기:
취리히에서 기차를 타고 바르(Baar)까지 간 뒤, 버스를 타고 카펠 암 알비스, 클로스터(Kappel am Albis, Kloster)에서 하차하면 5 분 거리에 수도회 호텔이 있다.

예약:
www.klosterkappel.ch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6. 베른(Bern) 근교 에를라흐(Erlach)에 있는 수도회 호텔, 클로스터호텔 생 페터진젤(Klosterhotel St. Petersinsel)***
과거에 클뤼니(Cluniac) 수도회였던 곳으로, 그 역사가 12 세기까지 올라가는 유서 깊은 곳이다. 지금은 모던한 스타일과 수도회적인 간결성이 조합된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13 개의 특별한 객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시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빌(Biel) 호수에 있는 생 페터진젤 섬에 자리해 있어 더욱 특별한 수도회 호텔은 2010 년 "올해의 역사적 호텔"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도원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근교에서 공수한 싱싱한 재료를 사용해 요리하는데, 빌 호수에서 잡은 생선, 이웃 농가에서 공급받은 고기과 채소를 사용한다. 생 페터진젤 섬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서 기원한 요리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찾아가기:
베른(Bern)에서 기차를 타고 빌/비엔느(Biel/Bienne)에서 환승해 튀셔츠(Tüscherz)에 내린 다음, 보트를 타고 생 페터진젤 노르트(St. Petersinsel Nord)에 내린다. 10 분 거리에 호텔이 있다.

예약:
www.ile-saint-pierre.ch

7. 비스리코펜(Wislikofen)의 프롭슈타이 비스리코펜(Propstei Wislikofen)
과거에 수도원이자 교회, 세련된 업무 공간이자 정원이었던 곳으로, 베네딕트 수도회 900 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곳이다. 바드 주르작(Bad Zurzach)에서 7km 거리,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45 개의 객실과 세미나 및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라인 강가에 자리한 작은 마을을 지켜온 이 수도원은 2010 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정식으로 여행자를 맞이할 수 있는 숙소로 탄생하였다. 이 지역의 제철 재료로 정성껏 차려낸 요리가 수도원 호텔의 정수를 보여준다. 아늑한 안뜰, 성가대 공간, 수도원과 돌로 된 나선형 계단이 낭만적이다. 옛날에 셀러로 쓰이던 공간은 지금 스타일리쉬한 만남의 장소로 변신했다. 허브 가든, 수도원 숍 외에도 바드 주르작 마을에 있는 온천탕이 있어 즐거움이 가득하다. 주차도 무료로 할 수 있다.

찾아가기:
취리히에서 기차와 버스를 타고 "비스리코펜 도르프(Wislikofen, Dorf)" 정류장에 내려 5 분만 걸으면 된다. 취리히에서 약 1 시간 정도 소요된다.

예약:
www.propstei.ch

8. 피으-디유 수도회(Abbaye de la Fille-Dieu)
피으-디유 수녀원은 산티아고 길에 있어 일상의 분주함에서 도피해 안정과 고요를 찾아 나선 여행자들을 품어준다.

프리부르(Fribourg) 지역 로몽(Romont)에 위치한 수녀원은 침묵의 근원지에서 재충전하고자 하는 여성을 환영하는 평화의 안식처다. 13 세기에 세워진 수녀원으로, 원래는 시스터시우스(Cictercian)의

수녀들이 운영하다가 1906 년 현재의 트라피스트(Trappists) 손에 들어갔다. 누구나 이곳에서 밤을 보낼 수 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수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다.

수녀원 숍은 꼭 찾아봐야 하는데, 세상 최고의 머스터드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녀원에서 발명한 오랜 레시피로 만든 명물이다. 수녀님들이 만드는 빵도 일품이다. 이곳은 프리부르 지방의 영적인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데, 프리부르 내 영적 에너지를 가진 장소 60 곳(Esprit des lieux) 프로젝트의 일부다. 이 지역은 천주교의 주요 전통, 풍부한 건축 유산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 한가운데 자리한 파워 스폿이다.

찾아가기:
로잔(Lausanne)에서 기차로 로몽(Romont)까지 간 뒤, 약 20 분을 걷거나, 버스로 로몽, 일렉트로베르(Romont FR, Electroverre)에서 하차해 5 분 정도 걸으면 수녀원이 나온다.

예약:
투숙일 전날이나 투숙 당일 오전 11 시까지 다음으로 전화 예약을 하면 된다. 리셉션은 오후 5 시까지만 운영된다. 단, 2020 년 7 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위기로 투숙객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T. +41 26 651 90 10
www.fille-dieu.ch

9. 프라우엔펠트(Frauenfeld) 근교의 바르트(Warth)에 있는 카르타우제 이팅엔(Kartause Ittingen)*S**
진정한 창작에 푹 빠져볼 기회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잘 돌본 정원에 둘러싸인 오래된 수도원의 고요한 분위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마법의 샘이다. 과거 수도원이었던 곳으로, 지금은 수페리어 3 성급 호텔이다. 이 호텔은 투어(Thur)의 풍경이 펼쳐지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프라우엔펠트와 보덴제(Bodensee) 호수에서 불과 몇 분이면 갈 수 있다.

호텔은 68 개의 심플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유서 깊은 객실, 농장과 넓은 규모의 정원이 감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레스토랑과 농장 상점에서는 빵이나 쿠키, 꽃, 고기, 채소, 치즈, 와인 등 호텔 농장에서 재배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볼링장, 당구장, 야외 체스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포레스트 퐁뒤, 치즈 만들기, 시음을 곁들인 셀러 가이드 투어, 수도원 및 가든 투어, 투르가우(Thurgau) 미술관, 이팅엔 숲 보존 구역,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찾아가기:
취리히에서 기차를 타고 프라우엔펠트(Frauenfeld) 역에 내린 다음, 버스로 환승하여 바르트(Warth)에서 하차하면 된다. 10 분만 걸으면 호텔이 나온다.

예약:
www.kartause.ch

10. 프리부르(Fribourg) 고요 속에 자리한 메그로쥬 수녀원(Abbaye de la Maigrauge)

메그로쥬에서 생활하는 시토(Cistercian) 수도회의 수녀님들은 젊은 여성들이 수도원에서 잠시 머물다 가도 좋다고 환영한다. 고요 속에 파묻혀 삶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대한 답을 탐색해 보거나, 삶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기 원하는 이라면 이곳에 머물다 가도 좋으나, 최소 1 주 이상 머물러야 한다. 게스트하우스에 마련된 침실 하나를 내어 주고, 수녀원의 일상에도 초대받는다. 전담 수녀님의 지도 아래 생활하게 된다. 수녀원의 상점에서는 수녀님들이 유기농 정원에서 채취한 재료로 정성껏 만든 잼, 허브티와 같은 특별한 제품도 살 수 있다.

찾아가기:
기차로 프리부르(Fribourg)까지 간 뒤, 버스로 갈아타고 프리부르에 있는 누브빌/모타(Fribourg, Neuveville/Motta)에서 하차해 10 분만 걸으면 수녀원이 나온다.

예약:
www.maigrauge.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